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5 인과 업보는 피할 수 없는가



▶한줄 요약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틈 날 때마다 '내가 분별심을 가졌었구나'하고 툭툭 털어 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을 돌리면 팔자가 바뀐다

>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인과의 모습
> 희로애락 감정으로 분별심 생겨나니
> 순간순간 참회하고 분별을 내려놔야
> 참회 습관 되면 무애자재 보살된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티끌 모아 태산은 티끌 하나 내치지 않고
바다는 온갖 강물 마다하지 않는다네.
마음을 허공같이 분별치 않으면
오만 생각 갖은 감정 무엇이 문제리오.

태산 같은 큰마음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허공 같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약간 헷갈릴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과 갖은 감정 자체가 분별(分別)된 것인데 약간 모순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한 생각, 한 감정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도인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갑자기 '왜 참회인가' 하겠지만 우리는 틈 날 때마다 '내가 분별심을 가졌었구나' 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은 인과(因果, 원인·결과)의 모습일 뿐이고, 자업자득(自業自得)일진대, 또 내가 상(相)을 내고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여 스스로 망상(妄想)과 삼독심(三毒心)을 또 내고 말았구나' 하고 참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든 화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횟수를 늘려서 하루 한 번 이상 하다 보면 순간순간 마다의 습관이 길러지면 궁극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無碍自在) 보살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쉬운 법과 상식입니다. 법은 인과법을 말하는 것이고, 상식은 인과법을 잘 알아 망상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것과 싫은 것, 이득과 손해는 한치 오차 없이 서로 똑같은 질량을 가졌으니 결국 공(空)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코 공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불자들 중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을 친다거나 풍수를 본다거나 갖은 방법을 써서 예방을 한다거나 한방의 기도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려는 알량한 시도 등은 도둑놈의 심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에 있어서 이러한 작태들은 오히려 나쁜 과보(果報)로 이어지게 됨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장애(障碍)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팔자와 인과 업보(業報)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돌리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조심하라고 해서 평생 물 근처는 가지도 않았으나 어느 날 넘어져 코를 박고 죽었는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 기도를 막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든 사례지만 이와 같이 큰 업(業)을 함부로 좌지우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써 팔자를 고치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명상]
이러쿵저러쿵 골백번 궁리해도
이 기분 저 기분 변덕스런 감정뿐,
이성(理性)과 지성(知性)으로도 어찌 할 수 없을 때
기도와 참선은 마지막 자산(資産)이리니.

중생의 마음은 정(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을 느끼는 것이 감정(感情)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유정(有情)이라 합니다. 정을 빼면 목석(木石)이 아니면 부처입니다. 정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즐거운 정과 괴로운 정,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정(無情)입니다.

이를 유식(唯識)에서는 수온(受蘊), 즉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를 합쳐 삼수(三受)작용이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한다. 대개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그 무엇을 생각하면 기억과 함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며 무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부처와 보살, 아라한과 조사 스님들은 감정을 완전히 여읜 자비(慈悲)와 적멸(寂滅)이 있을 뿐이니 생사(生死)와 생멸(生滅)이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감정이나 괴로운 감정,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 중에 하나만 생겨도 나머지 다른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감정은 괴로운 감정에 의해 생기게 되고 괴로운 감정 역시 즐거운 감정 때문에 생기게 되므로 이 둘의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낮과 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감정이 100이면 괴로운 감정 역시 10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감정의 질과 양은 한치 오차 없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모든 행동과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인연은 인과(因果)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부차적인 것일 뿐인데, 문제는 고락사(苦樂捨)의 감정이 불필요하게 얹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아이는 정작 고통스러워 울고, 어머니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어났으니 즐겁고, 자식을 낳았으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서도 고락은 함께 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부자이고 높은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이면에 남모를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 부단히 욕심내어 노력하고 성취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락사의 감정 기복은 커져만 갈 뿐이니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려도 그 자리를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게 되고 이것과 저것,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인과적으로 생멸(生滅) 변화할 뿐이니 그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락사의 감정이 번갈아서 자가발전(自家發電)하여 계속적으로 윤회(輪廻)하게 되니 이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삼세(三世, 전생·금생·내생)의 총량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라도 더 괴롭거나 더 고통스럽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 뒤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락사의 감정 자체를 여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몰되어 계속적인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없으므로, 이것의 해결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여 마음 수행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행동지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당장이라도 기도, 참선, 보시, 정진의 틀을 하루빨리 갖춰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